

SK, 서린동서 구세군 모금행사

SK는 12월23일까지 서린동 본사 1층에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행사를 진행한다고 12월 18일 발표했다.

SK 임직원들은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을 이용해 산타복장을 입고 모금에 나서고 있으며 모은 기금을 한국구세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16일부터 2일간 워커히호텔에서 SK천사단과 서울, 경기지역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자 등 200여명을 초청해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행사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탕과 과자 등이 담긴 4000여개의 선물상자를 만들었다.

<화학저널 2005/12/20>